

30억원 이상 사찰 재정공개

(올 7월부터)

총무원장 자승스님, 27일 회견

3차 100인 대중공사 논의 바탕
사찰재정 투명화 후속조치 발표

종단이 오는 7월부터 직영사찰, 특별분담금 사찰, 4등급(30억원 이상) 이상 사찰의 재정을 공개한다. 또 전국 본·말사 등 사찰에서 발생하는 주요 지출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예산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4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찰재정 공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찰 재정 공개는 지난 3월 25일 진행된 3차 100인 대중공사 '사찰재정 투명화' 의제 논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종단은 우선적으로 오는 7월 직영사찰, 특별분담금사찰, 4등급(30억원 이상) 이상 사찰의 재정을 공개하기로 했다. 재정공개 대상 사찰은 약 50여 곳으로, 종단은 6월 중으



지난 4월 27일 총무원장 자승스님 사찰 재정공개 추진계획 발표 기자회견. 신재호 기자

로 대상 사찰 회의를 통해 재정공개의 형식, 범위, 절차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재정공개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4등급 이상 사찰뿐만 아니라 15등급(9억원 이상) 및 24등급(2억원 이상) 이상 사찰 등 단계적으로 재정공개 대상 사찰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임자 보시, 법사비, 중무활동비 등 주요 지출 항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오는 8~9월 예산편성 지침을 마련

해 전국 본·말사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또 6월 이내에 사찰예산회계법 시행령을 제정해 카드결제시스템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며, 문화재구역임장료에 대한 카드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중무행정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2억원 미만의 사찰을 대상으로 한 재무관리 프로그램도 추가 개발해 2016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찰에 대한 제재도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종헌과 종법에 예결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찰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미비점을 개선해 오는 11월 중앙총회에 관련 종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사찰 재정공개는 종교단체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면서 더욱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 중생구제라는 불교 본연의 가치가 실현되고, 불교가 발전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사부대중의 신뢰와 책임 있는 참여도 가능하게 된다”고 재정공개의 의미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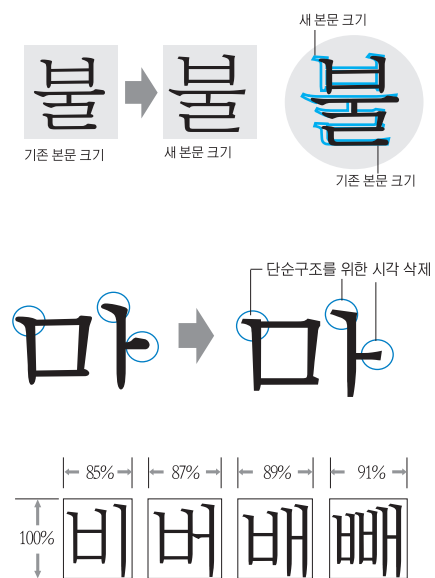
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社告

불교신문 글자가 밝아졌습니다.
읽기 편하고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 새로워진 본문 서체의 특징

1. 글자 크기를 2.5% 확대하여 눈의 피로감이 적어졌습니다.
편안하고 읽기 쉬운 독서를 위하여 글자의 크기를 기존 서체보다 2.5%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글자의 초성과 종성의 크기를 종전보다 더 크게 설계하여 글자의 모양도 더 분명해졌습니다.
2. 수평적 가상선에 의한 문장의 가지런함으로 읽기가 한층 편안해졌습니다.
3. 글꼴의 시각적 단순 구조로 인쇄의 질이 깨끗해 지면서 깔끔해졌습니다.
4. 합리적인 자간(글자 간격)과 단어간(단어 사이의 간격)의 과학적 설계로 가독성과 판독성이 좋아졌습니다.



불교신문이 이번호부터 새로 적용한 활자는 한글미디어디자인연구소가 한글 가로짜기 전용 서체의 구조를 연구하고 신문의 특성에 맞게 글꼴 구조를 개선하여 만든 '2014 예니미디어 폰트'입니다. 한글의 중심선을 글자 초성에 맞춰 문장이 수평으로 가지런한 정렬감을 주어 지면이 보기에 단정하고 가독성이 뛰어납니다. 글자의 획수에 따른 자음 자간 적용을 하여 넓었다 좁았다 하던 글자 사이의 간격이 알맞게 조절되었고, 단어 간의 사이와 행간의 사이도 비례가 맞아 전체 지면표정이 단호해 보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끝 공간은 넓어지면서도 글자는 더 커 보일 수 있도록 자음(초성, 종성)의 크기를 확장했습니다. 독자여러분에게 보다 편안하고 읽기 좋은 독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단, 네팔 긴급구호봉사단 급파

본지 이경민 기자도 현지 도착

홍법문화재단 기금 1억원 기탁

조계종이 강진으로 대규모 인명참사가 발생한 네팔 현지에서 긴급구호봉사단 선발대를 파견했다. 조계종은 지난 4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단, 네팔 대지진 긴급구호 선발대 파견' 발대식을 가진 데 이어 오는 4일까지 네팔 현지에서 현장 조사와 함께 긴급구호활동을 전개한다. 조계종은 같은 날 오전 긴급회의를 통해 20만 달러를 구호기금으로 우선 지원하고, 총무원 사회부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 등으로 구성된 선발대를 네팔 현장에 급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회부 사회국장 각평스님이 단장을 맡아, 복지재단 교육인적자원부 공선주 과장, 서천수 팀장,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 박성주 팀장 등과 함께 네팔 카트만두 지역에서 현지 조사 및 비상식량과 물품 지원 등 구호활동을 벌이게 된다. 본지 이경민 기자도 동행해 현지의 피해상황과 선발대의 활동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봉사단은 네팔 현지에서 지역 활동가들과 현장 조사를 벌인 후 페이스북을 구축해 발 빠른 긴급구호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네팔한인회

장을 맡고 있는 영봉스님을 비롯해 네팔에 지부를 두고 있는 불교계 구호활동단체 및 활동가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현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통역이 가능한 안내인을 고용해 현지 파악에 발 빠르게 나서 구호활동을 해주길 바란다”며 “봉사단원들도 건강에 유의하고 조심히 돌아오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발대식에 앞서 사단법인 홍법문화재단(이사장 정우스님)은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에 네팔 재난 구호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정우스님은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가 있는 네팔에서 참혹한 사고가 나 안타깝다”며 “네팔이 하루빨리 복원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금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와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은 네팔 지진 재해복구와 피해구호를 위한 기금을 모금하고 있다.

▶관련기사 3편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네팔 지진 참사!
희망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국민은행 023501-04-125198(불교신문)
농협 301-0171-2448-11(아름다운동행)



네팔 카트만두 코판 사원의 스님들이 지난 4월 27일 지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 UN은 4월 25일 발생한 리히터 규모 7.8의 강진으로 800만 명이 피해를 당했고 140만 명이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AP연합

“네팔 지진 희생자 애도
삶의 터전 회복 기원”

진제 종정예하 위로메시지
대사관에 구호기금도 전달

진제 조계종 종정예하가 네팔 대지진과 관련해 슬픔에 빠져 있는 네팔 국민들과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위로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진제 종정예하는 지난 4월 27일 “우리 불자와 국민 여러분들이 한시라도 빨리 앞장서 도와야 한다”며 “고귀한 생명의 빛이 더 이상 꺼지지 않도록, 충격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외롭지 않도록, 삶의 터전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기도를 하자”고 당부했다. 종

정예하는 메시지와 함께 긴급구호기금 2000만 원을 네팔대사관에 전달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도 같은 날 애도문을 발표하고 “네팔 국민들과 슬픔을 함께 한다. 한국의 2000만 불자 모두는 재난극복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단협은 긴급구호기금 5만 달러를 지원하고, 회원 종단을 대상으로 추가 모금을 전개하기로 했다.

김하영 임태규 기자

세계평화 간화선 무차대법회

증명 :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진제대선사
초대합니다. 善男善女들이여 광화문 광장으로 모두 다 모이자!

옛 부처님이 나기 전에 누가 우주의 주인인가
고요하고 고요해서 그 체성은 평안한지라
온 세계가 한 집이요 정이 있고 정이 없는 모든 만물이 한 몸이로다.

이시대에 재현된 부처님의 영산회상

2015년 5월 16일(토) 오후 7시 광화문광장

대한불교조계종
해운정사

051) 746-2256 www.seon.or.k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2로 40-6